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October 2025 Issue | Vol. 75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주요 아세안 협정으로 무역 흐름 강화 기대 — page 1-2
- 하반기 완화에 GDP 성장세 '견조' 전망 — page 2-3
- 재무부, 근로자 소득세 면세 한도 인상 검토 — page 3-4
- 아세안-한국, FTA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 page 4-6
- 피치 신용평가: 정치 불안·부패 우려, 필리핀 경제 전망에 먹구름 — page 6-7
- 수출·소비 증가로 한국 3분기 성장세 견인 — page 7-8

UPCOMING EVENT

- [Nov 24, 2025] 2025년 KCCP 크리스마스 파티 — page 9
- [Nov 27, 2025] 제20회 JFC 네트워킹 나이트 — page 9

필리핀, 주요 아세안 협정으로 무역 흐름 강화 기대

October 27, 2025 | Chloe Mari A. Hufana | BusinessWorld

쿠알라룸푸르 — 필리핀은 두 가지 주요 무역 협정인 'ASEAN-중국 자유무역지대(ACFTA) 3.0 업그레이드'와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제2차 개정의정서'가 역내 경제 협력을 현대화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역 내 무역 및 투자 흐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요일(현지시간) 이곳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궁 언론담당관 클라리사 A. 카스트로는 프레데릭 D. 고 대통령 특별보좌관(투자 및 경제 담당)*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ATIGA 개정이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도 아세안 역내 무역 협정의 관련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강화된 협정은 무역 원활화 조치, 투명성 조항,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개선, 그리고 새롭고 싹싹하는 무역 요소의 포함을 통해 특히 큰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ATIGA(아세안 상품무역협정)는 마. 크리스티나 A. 로케 필리핀 무역산업부 장관이 토요일에 서명했으며, 일요일에 아세안 정상들에게 공식 전달되었다.

카스트로 대변인은 또한 인증된 경제운영자(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의 상호 인정을 포함한 새로운 조항들이 공인된 무역업자들이 아세안 전역에서 더 빠르게 화물을 통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또한 원산지 자율신고 제도, 전자 인증서(e-Form B), 그리고 디지털 서류의 수용을 촉진함으로써, 필리핀 기업들이 국경 간 무역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스트로 대변인은 “기업들은 원산지 자율신고, 전자 원산지증명서(e-Form D)의 시행, 그리고 디지털 문서의 수용을 통해 행정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과 캐나다는 2026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bilateral(양자) 회담에서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마크 조셉 카니 캐나다 총리가 회담을 갖고 협상 가속화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제조업, 국방, 전통 및 청정에너지 부문을 포함해 3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교역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카니 총리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향후 10년간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의 수출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며, 동남아시아를 그 핵심 파트너로 위치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Cont. page 2]



MALAYSIA'S Prime Minister Anwar Ibrahim (right) greets Philippine President Ferdinand R. Marcos, Jr. and his wife Liza as they arrive to attend the 47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Kuala Lumpur, Malaysia, Oct. 26. — RAFIQ MAQBOOL/POOL VIA REUTERS

필리핀, 주요 아세안 협정으로 무역 흐름 강화 기대

[Cont. from page 1]

캐나다와 필리핀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2026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은 또한 보다 폭넓은 캐나다-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협정을 필리핀이 아세안 의장국을 맡는 같은 해(2026년)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정상은 또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양자 방문을 추진할 가능성을 환영하고, 무역 및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카스트로 대변인은 ACFTA 3.0 업그레이드가 아세안-중국 간 파트너십을 ‘보다 현대적이고, 더 포괄적이며, 오늘날의 글로벌 현실에 더 잘 부합하는 형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카스트로 대변인은 마. 테레사 P. 라자로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개정된 협정 체계가 디지털 및 녹색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연결성을 강화하며, 역내 가치사슬 내에서 중소기업(MSME)의 역량 강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CFTA 3.0 업그레이드는 2002년에 체결된 기존 협정을 확장한 것으로, 상품무역, 통관 절차, 투자 협력에 더해 경쟁, 소비자 보호,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공급망 연계성에 관한 조항을 새로 도입했다.

중국과의 협정은 아세안이 체결한 첫 번째 역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여전히 역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 중 하나로 평가된다.

아세안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이후 아세안의 최대 교역 파트너국으로, 같은 해 양측의 교역 규모는 5,079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2005년 발효된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은 양측 간 교역을 4배 이상 확대시켰다.

데 라 살레-칼리지 오브 세인트 베닐데(De La Salle-College of St. Benilde)의 아세안학 강사 호세 라파엘 J. 코르테스는 다가오는 ACFTA 3.0 업그레이드 서명이 “아세안이 주요 글로벌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경제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강화된 협정은 아세안이 글로벌 무역의 도전, 녹색 전환, 지속 가능한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파트너들과도 공통된 우선순위를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코르테스 강사는 “중국이 녹색 번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이 기술 이전에 국한되지 않고, 11개 회원국과 중국이 함께 효과적으로 녹색 전환을 추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MSME)이 동남아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협정은 해당 부문이 디지털화를 점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지금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디지털화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0/27/707924/phl-anticipates-stronger-trade-flows-from-key-asean-deals/>

하반기 완화에도 GDP 성장세 ‘견조’ 전망

October 27, 2025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BSP Deputy Governor Zeno Abenoja said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GDP) expanded by 5.5 percent in the first half of 2025 and may continue to grow at a similar pace in the coming quarters despite some headwinds.

STAR / File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은 하반기 성장세가 다소 완화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필리핀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이하를 유지하고, 통화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기초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

제노 아베노하(Zeno Abenoja) BSP 부총재는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5.5% 성장했으며, 일부 불확실 요인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분기 동안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기상 악화와 일부 분기 내 혼란 요인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다소 완화된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5.4%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전체 성장률은 5.5%로 집계됐다.

아베노하 부총재는 3분기 성장세가 전 분기보다 둔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Cont. page 3]

하반기 완화에도 GDP 성장세 ‘견조’ 전망

[Cont. from page 2]

아베노하 부총재는 BSP(필리핀 중앙은행)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소 5.5%, 2026년에는 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여전히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장세는 탄탄한 국내 수요, 안정적인 고용시장, 민간 투자 활동의 개선세에 힘입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다소 완화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구매관리자지수(PMI) 둔화와 사업 확장 계획 기업의 감소를 근거로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아베노하 부총재는 “소비자 심리가 뚜렷하게 위축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실업률이 4% 안팎 혹은 그 이하로 유지되며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나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필리핀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3년간 연평균 5% 이상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경제는 인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세 나라뿐”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인용했다.

아베노하 부총재는 또한 경상수지 적자(Current Account Deficit)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는 소비 증가보다는 투자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남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며 평균 2%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26년과 2027년에는 중앙은행 목표 범위의 중간값인 약 3%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물가가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다. 대체로 2% 이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은 큰 우려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9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1.7%로 하락, BSP의 목표 범위(2~4%)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쌀값 하락과 에너지 비용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역시 2% 미만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그는 기상 요인으로 연말 일시적 물가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목표 이하 수준일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는 날씨로 인한 공급 차질로 물가가 2%에 근접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BSP는 2024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총 175bp(1.75%포인트) 인하했고,

은행 지급준비율(RRR)을 낮춰 약 6,500억 페소(P650 billion)의 유동성을 금융시스템에 공급했다.

아베노하 부총재는 “이러한 조치는 금융중개 비용을 낮추고, 은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향후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transmission)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M 인베스트먼트스(SM Investments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댄 로세스(Dan Roces) 역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기 역풍이 단기적으로 성장을 일부 제약할 수는 있지만,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말했다.

“보수적으로 본다면 내년 성장률은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급등은 아니지만, 소비 회복과 민간 투자 재개가 성장세를 떠받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세스는 또 “현재 물가 수준이 충분히 낮아 중앙은행이 완화적 조치를 취할 여력이 생겼다”며, “신용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의 여유 자금이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0/27/2482724/steady-gdp-growth-seen-despite-moderation-h2>

재무부, 근로자 소득세 면세 한도 인상 검토

October 27, 2025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정부가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의 비과세 복리후생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DOF)가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민간 및 공공 부문 근로자 모두가 더 높은 수준의 비과세 수당과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게 되어, 산업 전반에서 근로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 부문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기존 10일에서 12일로 확대되며, 공공 부문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및 병가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재와 같이 한도 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Cont. page 4]



재무부, 근로자 소득세 면세 한도 인상 검토

[Cont. from page 3]

의료비 현금 수당의 부양가족 한도가 학기당 1,500페소에서 2,000페소로 인상되며, 쌀 보조금도 월 2,000페소에서 2,500페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장 가치로 인상된다.

재무부(DOF)는 또한 “복장 및 유니폼 수당의 비과세 한도 역시 연간 7,000페소에서 8,000페소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기타 제안된 조정 사항으로는 실제 의료 지원 한도를 연간 10,000페소에서 12,000페소로, 세탁 수당을 월 300페소에서 400페소로, 직원 성취 포상금을 연간 10,000페소에서 12,000페소로, 크리스마스 또는 기념일 선물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페소에서 6,000페소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야근 또는 심야 근무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최저임금의 25%에서 30%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단체교섭협약(CBA) 및 생산성 인센티브의 연간 비과세 한도는 10,000페소에서 12,000페소로 조정된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025년 10월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공정성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라며 “모든 필리핀 노동자가 국가의 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랄프 렉토 재무장관은 이러한 조정이 정부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렉토 장관은 또한 국세청(BIR)에 특정 납세자 집단을 원천징수세 납부 의무에서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부(DOF)와 국세청(BIR)이 납세자의 준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단순화하고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corporate/dof-may-raise-workers-tax-exempt-cap/>

아세안-한국, FTA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October 28, 2025 | Chloe Mari A. Hufana | BusinessWorld



Philippine President Ferdinand R. Marcos, Jr. (eighth from left) poses for a photo with South Korea's President Lee Jae Myung (sixth from left) and other leaders from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during the 26th ASEAN-Korea Summit in Kuala Lumpur, Malaysia, Oct. 27. — COURTESY OF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 (PCO) FACEBOOK PAGE

쿠알라룸푸르 —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월요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시장 개방을 유지하고 세계 경제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의 검토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은 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대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 개시를 환영한다. 이는 아세안과 한국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도 우리의 협력이 여전히 중요함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26차 아세안-대한민국 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또한 이번 무역협정의 강화가 양측 모두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무역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아세안(ASEAN)과 한국 간 교역 규모는 1,871억 달러에 달했다.

서울은 아세안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아세안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해외 투자 대상 지역이다. 아세안 지역으로의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22년 108억 달러, 2023년 7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데 라 살-베니에 대학교(De La Salle-College of St. Benilde)의 아세안 연구 강사 조슈에 라파엘 J. 코르테즈는 이번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검토가 현재의 지정학적·지경학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십이 적응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Cont. page 5]

아세안·한국, FTA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Cont. from page 4]

그는 또한 한국이 아세안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서, 세계 경제의 변동 속에서 상호 경제적 회복력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번 파트너십의 강화는 의심할 여지 없는 상호 윈윈(win-win) 상황이며, 특히 무역 다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필수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자유무역협정(FTA)의 업그레이드가 실현될 경우 농업 및 기계 부문 교역을 촉진하고, 관광 중심의 성장세를 강화하며, 한국의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르테즈 씨는 필리핀의 경우 이번 협정이 전자제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석유 및 농산물의 대체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안정성과 식량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마르코스 대통령은 월요일 열린 제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협정 가입 절차를 가속화해 회원국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MSME)을 포함한 기업들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기 확대가 역내 통합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며, 아세안이 아시아 경제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가입 절차를 지체 없이 진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RCEP은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협정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교역의 약 3분의 1을 포괄한다.

필리핀 대통령은 “RCEP은 규칙 기반 무역 체제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는 오늘날의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RCEP은 무역과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틀을 제공하여, 신뢰·공정·투명성의 기반 위에서 역내 경제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RCEP 회원국들이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이 협정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리핀은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해 협정 홍보를 위한 역내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화·비즈니스 매칭·국경 간 협력을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은 우리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내년 11월 국제무역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또한 RCEP이 세계적 흐름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무역, 창의경제, 녹색 전환, 그리고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부각했다.

코르테즈 씨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필리핀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날의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RCEP이 세계 시장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코르테즈 씨는 “무역은 단지 급등하는 관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갈등의 영향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늘날 세계 곳곳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만큼, 무역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RCEP은 공동의 틀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가입국들은 필요할 때 대안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6]

아세안·한국, FTA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Cont. from page 5]

마르코스 대통령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창립 원칙에 따라, 저숙련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면서도, 블록이 전통 산업을 넘어 창의경제와 혁신과 같은 신흥 산업 분야로 초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세 협상 지속 중

말라칸양궁 대변인 클라리사 A. 카스트로는 투자·경제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 프레데릭 D. 고의 말을 인용해 “마닐라와 워싱턴 간의 관세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가 지난 주말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베트남과 태국 역시 미국과 무역 협력 기본 합의를 서명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카스트로 대변인은 월요일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역 규칙 및 규제, 서비스 및 투자와 같은 비관세 조치 등 포괄적인 사안들도 협상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이 협상에는 특히 농산물—코코넛, 파인애플, 설탕, 코코아—및 전자 제품과 같은 분야에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들 분야는 현재 마닐라가 쉽게 조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8월 7일부터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여러 품목에 대해 1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일요일 열린 제13차 아세안-미국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은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며, 양 지역의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0/28/708263/asean-south-korea-launch-fta-upgrade-talks/>

피치 신용평가: 정치 불안·부패 우려, 필리핀 경제 전망에 먹구름

October 28, 2025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중간선거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측근들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부패 스캔들이 신뢰를 흔들면서 필리핀의 투자 전망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 흐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동종 신용 분석(peer credit analysis) 보고서에서 필리핀 경제가 올해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한 5.5~6.5% 성장 목표 범위 내에 있다고 전했다.



피치 레이팅스는 필리핀의 성장이 공공 인프라 투자, 서비스 수출, 그리고 해외 송금에 기반한 민간 소비에 의해 견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부문 수요는 완화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하락에 힘입어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그러나 최근 중간선거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측근들이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치는 글로벌 교역 긴장이 필리핀의 성장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세계 수요 둔화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재정 통합(fiscal consolidation) 측면에서의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필리핀의 거버넌스 기준이 여전히 다른 BBB 등급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는 강한 명목 GDP 성장세를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정부 부채 대비 GDP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Cont. page 7]

피치 신용평가: 정치 불안·부패 우려, 필리핀 경제 전망에 먹구름

[Cont. from page 6]

피치 레이팅스는 정부가 부채 안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특히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통합 노력을 축소하거나 지출 압력이 증가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 성장 전망에 대한 신뢰 상실이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가 국가의 대외 건전성과 신용 프로파일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가 조세 개혁이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성장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출 경우, 긍정적인 등급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피치는 설명했다.

아울러 필리핀이 중기적으로 더 강한 성장세를 달성하고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하며, 거버넌스 기준을 상위 등급 국가 수준에 근접하게 강화한다면 등급 상향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역내 경제 전망과 관련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지속적인 무역 갈등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아시아 신흥국들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세안+3 지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중국, 홍콩(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MRO의 와타나베 야스토(渡辺康人) 사무총장은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무역 관련 조치의 부담이 내년에는 더욱 커질 것이며, 역풍 요인들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세안이 관세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등 무역 자유화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 비중은 수십 년째 전체 교역의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별 가치사슬(GVC)을 활용해 국내 산업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세안 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세안의 심층적 통합은 세계 개방성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필수적인 보완 요소”라며, “성장의 원천을 다양화함으로써 아세안+3 국가 전체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MRO는 아세안+3 지역의 성장률이 2025년에 4.1%에 이를 것으로, 2026년에는 3.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AMRO는 역내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0/28/fitch-ratings-political-jitters-corruption-woes-to-cloud-phl-outlook/>

수출·소비 증가로 한국 3분기 성장세 견인

October 28, 2025 | Agence France-Presse | Philippine Daily Inquirer



Starfield COEX Mall, Seoul

서울, 대한민국 — 한국은행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3분기에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성명에서 “재화와 서비스 모두에서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가 1.3% 성장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비 쿠폰 정책

이 정책으로 인해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며, 지난 3년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소비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최소 15만 원(약 104달러) 상당의 소비 쿠폰을 발행했다. [Cont. page 8]

수출·소비 증가로 한국 3분기 성장세 견인

[Cont. from page 7]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애널리스트 시반 탄돈(Shivaan Tandon)은 “정부의 소비 쿠폰이 11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소비 증가세는 곧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4위 경제권인 한국은 2분기에 0.7%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무역 협정 추진 중

이번 최신 통계는 서울이 미국과의 관세 충돌을 피하고, 미국 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무역 협정을 최종 타결하려는 가운데 발표됐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반도체 분야의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수출이 전 분기 대비 1.5% 증가했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 및 주요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9월 반도체 수출액이 16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9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급증세가 AI 서버에 사용되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의 강한 수요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를 0.9%로 설정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54990/exports-consumption-boost-south-korea-growth-in-third-quarter>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KCCP), Inc.**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ree, Salcedo Village, Makati City
Tel No.: (632) 8885-7342
E-mail: info@kccp.ph
Website: www.kccp.ph

[UPCOMING EVENT]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KCCP)는 오는 2025년 11월 24일 마카티 스포츠 클럽(Makati Sports Club)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함께할 스폰서(테이블 스폰서 또는 경품 스폰서)를 초대합니다.

이번 즐거운 행사는 한국과 필리핀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 시즌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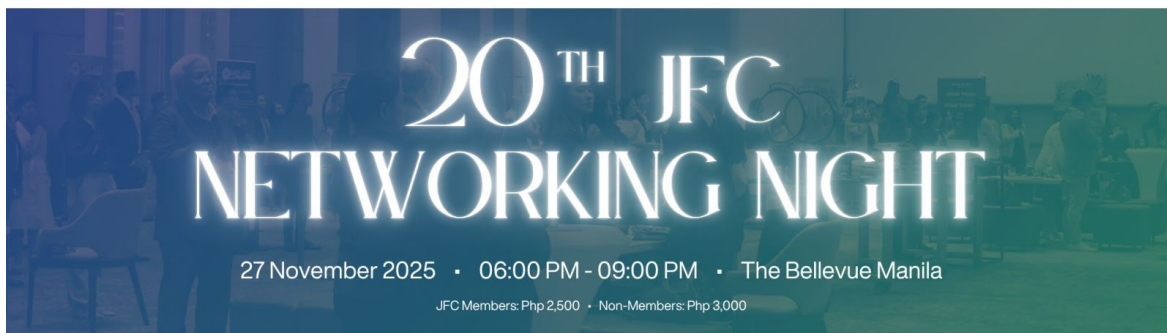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Ms. Chi / Ms. Sang
전화: +632-8885-7342
휴대폰: 09178015920 | 09158887296 (Viber 및 KakaoTalk 모두 가능)
이메일: info@kccp.ph

THE JOINT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AMCHAM • CANCHAM • ECCP • JCCPI
• KCCP • PAMJRI



ORGANISED BY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Our Areas of Expertise



PROPERTY INSURANCE 재물

Industrial All Risks 재산종합 | Fire Broad Named Perils 화재 |
Commercial All Risks 영업종합 | Machinery Breakdown 기계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종합 |
Equipment Floater 장비



MOTOR 자동차

CTPL 책임보험 | Comprehensive 종합보험 | Fleet Policy 그룹증권



PEOPLE SOLUTIONS 직원복지

Life 생명 | HMO 의료실비 보험 | Clinic Management 의료관리 |
Key Person Insurance 경영자보험



MARINE INSURANCE 적하/물류

Single Shipment 수입/수출 일회운송 | Marine Open 수입/수출 연간보험 |
Inland / Inter-island 내륙운송/섬간 이동 운송 | Stock Throughput 물류종합



ACCIDENT & TRAVEL 상해 & 여행자

Personal Accident (Individual & Group), Travel (Individual & Group)



LIABILITY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 |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물류업자배상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 | Directors and Officers 임원배상



OTHERS 기타보험

Bonds 보증보험 | MSPR 현금도난 | Fidelity 신원보증 | Trade Credit 신용보험 |
Political and Terrorism 정치적위험 및 테러 | Cyber Insurance 사이버보험

We Answer To No One But Our Client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29th and 36th Floors, Rufino Pacific Tower, 6784 Ayala Avenue corner
V.A. Rufino Street, Makati City, Philippines 1200

+632 8811 0388 info.philippines@lockton.com

For Korean accounts, you may contact Hye-Won "Eunice" Park 박혜원 팀장
eunice.park@lockton.com +63 917 854 7930

